

김승옥의 초기작에 나타난 성장소설 연구

배경열*

- I. 머리말
- II. 김승옥에 있어 성장소설의 의미
- III. 성장소설 양상
 - 1. '자기세계' 형성과 극기의 과정
 - 2. 죽음의 경험과 혼란을 통한 성장
 - 3. 근대화의 폭력적 현실 앞에서의 굴복
 - 4. '자기세계'의 모호함과 좌절
- IV. 결론

I. 머리말

이 논문은 김승옥의 초기 단편 소설에 나타난 성장소설적인 측면을 검토하면서 그 특성 및 의미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년기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니시에이션 문제와 함께 위악적 성장을 유도하는 현실 속에서 본래적인 자아를 찾기 위한 내면적 갈등을 다루는 것이 김승옥 소설에 흔히 나타나는 양상이다. 그런데 속악한 성인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유년기 화자의 이상 파괴와 좌절, 그리고 위악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본래적 자아의 존재성에 대한 고뇌와 방황에는 일관되게 '자아정체성의 탐구'라는 핵

* 한국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심 화두가 스며들어 있다.

미숙한 한 개인이 육체적·정신적인 갈등과 고뇌를 겪는 가운데 세상을 알게 되고 현실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성장 서사'로 볼 때, 김승옥의 초기 소설을 '성장소설'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적 어둠에 억눌린 1950년대의 전후 소설과는 차별화 된, 근대적 개인의 내면의 식 세계에 대한 탐구가 1960년대에 김승옥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김승옥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세계'를 그의 소설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김승옥은 소설 속 인물들을 통해 '자기세계' 형성에 관한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자기세계'라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자아정체성'이다. 이렇게 개인이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일련의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방황과 갈등, 그 이후의 사회로의 편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김승옥 소설에서 성장소설적인 특성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김승옥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세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50년대 전후문학과 구별되는 주제와 문체의 새로움에 주목한 연구¹⁾

둘째는 반영론적 관점에 입각해 소설 속 인물들의 근대적 체험이 1960년대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형상화 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²⁾

-
- 1) 김현,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 『현대한국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 문학과 지성사, 1991.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2002.
조남현, 『한국 현대 문학사상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9.
김병익, 「시대의 삶」, 『상황과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79.
김주연, 「새 세대 문학의 성립」, 『김주연 평론문학선』, 문학사상사, 1992.
천이두, 「존재로서의 고독」, 『제 3세대 한국문학』, 삼성출판사, 1986.
유종호, 「감수성의 혁명」, 『비순수의 선언』, 민음사, 1995.
홍정선, 「작가와 언어의식」, 『역사적 삶과 비평』, 문학과 지성사, 1986.
 - 2) 공종구, 「김승옥 소설의 근대성」, 『현대소설연구』 제11호, 한국소설학회, 1999, 12.
나병철, 『근대성과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1995.

셋째는 내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로 인물분석³⁾, 서사구조⁴⁾, 작가론⁵⁾, 시공간 구조⁶⁾, 정신분석학적 연구⁷⁾ 등을 분석한 연구 등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김승옥의 소설을 성장소설로 인식하면서 그 성장소설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김승옥의 소설이 분명히 통과제의적 과정을 지닌 성장소설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개별 작품별로 심도 있는 연구를 보여주고 있는 논문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유년기나 10대 무렵의 전쟁을 체험한 김승옥은 분단비극이 가한 정신적 외상을 객관화하는 데서 출발하여 분단문제 전반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확대시킨 글쓰기를 수행해 왔다. 이후 분단체계가 유지되면서 작가들이 느끼는 정신적 검열의 압력이 커지게 된다. 성장소설 양식은 이러한 좌절과 압력의 분위기를 우회하는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황도경, 『환각-거세된 욕망의 사회학』, 새움, 2004.

김영찬, 「불안한 주체와 근대」, 『1960년대 소설의 근대성과 주체』, 상허학회 편, 깊은샘, 2004.

김미현, 「근대성과 여성성」, 『한국소설연구』 제5집, 한국소설학회, 2003.

김정남, 「김승옥 소설의 근대성담론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2002.

3) 윤혜진, 「김승옥 단편소설 연구-‘척’하기의 시학」, 서강대 석사논문, 2001.

김태빈, 「김승옥 소설의 소의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2.

송태욱, 「김승옥과 고백의 문학」, 연세대 박사논문, 2003.

4) 이정란, 「김승옥 소설의 서술구조 연구」, 이대 석사논문, 1987.

김학균,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화자의 성격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8.

김학현, 「김승옥 소설연구-구조와 인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9.

조해진, 「김승옥 소설의 아이러니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2.

5) 오혜진, 「김승옥론-내면의식과 작품의 변모양상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2001.

박정란, 「김승옥 소설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7.

6) 백지연, 「196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도시공간과 주체의 양상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이동재, 「김승옥 소설의 시간구조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9.

7) 성수미, 「김승옥 소설연구-라카의 욕망이론으로 본 소설의 서술적 특징과 욕망의 양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박사논문, 1999.

정영훈,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주체의 욕망의 발현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8.

박수현, 「김승옥·최일훈 소설에 나타나는 ‘내적분열’양상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5.

김동현, 「김승옥 소설의 담론 연구-텍스트의 정신분석을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논문, 2005.

본 연구는 분단체험을 배경으로 하면서 성장소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의 성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등장인물의 비윤리적이고 부정한 현실세계와 타협하는 인물의 성장모습을 작가의 고통스러운 전쟁체험과의 만남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리라 생각한다.

II. 김승옥에 있어 성장소설의 의미

성장소설은 한 개인의 내면적 성장을 그린 소설을 말한다. 내면적 성장을 소설의 주요한 장치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성장 소설, 혹은 교양 소설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독일의 전통소설에서 나온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로 대표되는 시민적 성장소설과,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으로 대표되는 낭만적 성장소설로 분류할 수 있다. 8) 전자의 경우는 이성적 교양을 쌓아 한 사람의 훌륭한 시민을 만드는 것이 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후자는 당대의 혼란은 외면한 채 등장인물의 정신적 방황이나 혼돈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좌절과 시련을 통해 성인세계로의 편입을 꾀하는 자아성장 소설이다. 즉, 개인의 내면세계와 그 변화에 중점을 둔다. 9)

하지만 한국의 성장소설의 경우 이 둘의 진정한 화해를 통한 인간 내면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거의 없었다. 10) 한국의 성장소설은 화자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 대한 부정과 대립의 구도로 짜여져 있으며, 궁극적으로 성장을 위한 과정 역시 외부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교양소설로 일컬어지는 성장소설의 플롯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한국적 성장소설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8) 이보영, 진상범, 문석우, 『성장소설이란 무엇인가』 청예원, 1999, 20쪽.

9) 같은 책, 277-278쪽.

10) 이은애, 「'성장소설'의 측면에서 본 김승옥의 작품세계」, 『聖心語文論集 제26집』, 2004, 65쪽

우리 나라 사회 풍토에서 성장소설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째, 우리에게는 개인적, 내면적 성장을 발전, 유도할 만한 문화요소가 희박하다는 것, 둘째, 소년들의 입사의 계기가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충격이어서 자아의 각성은 개념적 형태라기보다는 사건적, 외형적 형태를 띤다는 것, 셋째, 소년이 결말에서 궁극적으로 동화되는 지배적 가치관은 자기 교정능력을 갖춘 살아 있는 긍정될 수 있는 문화 가치가 없을뿐더러 그것을 비판할 가치체계도 빈약하기 때문이다.¹¹⁾

김승옥의 소설들은 1960년대의 근대성¹²⁾을 고민하는 담론으로써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대화에 맞물린 성장소설이라고 보다 개인적 일상성의 담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그의 작품에서 보이는 '성장'의 발화와 그 변주들은 이념과 사회화, 전후의 근대화라는 역사적 배경 안에서 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성장소설과 엄격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물론 작가가 1인칭 시점을 구사하기 때문에 여성 화자에 비해 남성 화자가 좀 더 자주 사용되었고, 이는 역사의 재현 체계를 내면화하는데 있어서 남성을 쉽게 내면화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김승옥에게 있어서 여성화자는 내면의 성장, 성적주체로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맥락을 같이 하는 주요 메신저였음은 분명하다 할 수 있다.

김승옥의 성장소설들은 『데미안』으로 대표되는 낭만적 성장소설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지만, 그의 인물들은 성인 세계로 편입한 후에도, 불안과 좌절, 혼란을 겪는다. 정신적 성숙이 이뤄진 다음에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한 후에 괴리감을 겪게

11) 김병익, 「성장소설과 문화적 의미」, 『지성과 문학』, 문학과지성사, 1992.

12) 근대성의 개념은 그 범주와 내포가 아주 중층적이다. 이 글에서의 근대성의 개념은 자본주의의 근대화에 따른 사회적인 변화와 개인적인 경험으로 우리에게 신뢰와 위험, 기회와 위험, 또는 해방과 억압, 환희와 고뇌 등의 야누스적인 얼굴을 동시에 지닌 자기 모순적인 체계로 그 개념적 범주를 한정하고자 한다. 윌러스틴은 근대성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에 대해 '기술적 이중성'과 '해방의 근대성'과의 협력과 갈등이라는 개념으로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다.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괴리감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성숙을 꾀한다. 자기세계가 구축되기 이전에 성인 세계로 진입을 하는 것이다. 이는 서둘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한국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서 오는 압박과 그에 따른 괴리감이라 볼 수 있다.

Ⅲ. 성장소설 양상

1. '자기세계' 형성과 극기의 과정

「생명연습」(『한국일보』, 1962)에는 먼저 가장의 부재라는 고난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고난의 상황을 극복해 내고자 하는 인물들이 제시된다. 그런데 이들 인물들은 자신의 고난을 긍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법에 의해 극복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고난을 극복해 내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방법 이외의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난의 상황을 극복해 내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방법이 없었다는 것, 오로지 부정적인 방법만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사실상 김승옥이 바라본 60년대의 조건이었다.

김승옥의 「생명연습」은 '자기세계'의 확립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 소설 속에 제시된 '자기세계'란 인간들이 안주할 곳이 사라진 현실, 윤리적 가치가 무용해진, 근대화의 물결로 요동치고 있었던 1960년대라는 부정적 현실에 어떤 식으로든 적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개인이 만들어 내야 할 세계였던 것이다.

작가가 설정하는 자기세계를 가진 인물들은 '분명히 남의 세계와는 다른, 마치 함락시킬 수 없는 성곽과도 같은 것'을 지닌 사람들로 극기(克己)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극기'란 말 그대로 자기를 극

복한다. 자기를 이긴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외부세계의 침입으로부터 자기세계의 자율성을 지키려는 싸움”¹³⁾이자, 자기만의 안목으로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자기세계’는 소설 속 인물들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우선, 「생영연습」의 서두에서부터 제시되는 ‘극기’의 모습이 그 중의 하나이다. 다방에서 본 대학생처럼 머리카락은 물론 눈썹까지 밀어버리거나, 내가 어린 시절 부흥회에서 보았던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식기를 스스로 잘라 버린 전도사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똑같이 신체의 일부를 잘라 낸다 해도 전자가 나에게 우습게 잘라내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공포를 유발하는 ‘극기’의 방식이다.

이와 같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극기’를 자청하는 것은 ‘자기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예컨대 ‘근엄하다고까지 할 정도의 침착성’과 ‘촌스럽지 않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는 한 교수나 겨우 서른 둘 밖에 안 된 나이에 얼굴에 수많은 그늘이 겹을 쌓고 있지만, ‘단순한 유머를 벗어난 만화를 그리는’, ‘으리으리하게 확립된 질서의 자기세계’를 가지고 있는 만화가 오 선생처럼 안정감 있고 깊이 있는 ‘자기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현실에 맞서 자기 나름의 세계를 지켜 나가기 위한 몸부림이 이런 신체에 대한 훼손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입시를 앞 둔 수험생들이 머리를 뺨뺨 미는 경우와 동케를 이룬다. 이들이 머리를 미는 행위는 결연한 의지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자신들을 유혹하는 외부 또는 또 다른 자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것들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 교수가 자기세계의 형성을 위해 ‘의식의 조작’을 했던 과거의 모습이다. 젊은 시절 런던 유학을 준비하던 한 교수는 자신의 애인

13) 이광호, 「깊고 어두운 자기세계」, 『김승옥 문학상 수상작품집』, 훈민정음, 1985.

이던 정순이 사랑을 위해 유학을 포기할 것을 요구해 오자, 사랑이나 유학이나 하는 갈림길에서 고민하다가 정순의 육체를 범해 버리기로 결심한다. 그는 “말뚱말뚱한 의식의 지휘 아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수술대 위에 누어진 화자가 물핀에 취할 때까지 수를 세듯”¹⁴⁾ 정순의 육체를 범하고서 인간으로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감정일지도 모르는 유학의 길을 떠난다. 말뚱말뚱한 의식 아래 그 의식의 조작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선택하는 것이다.

한 교수의 이야기와 교차되며 서술되는 나의 가족 이야기에다 자기세계의 모습이 나타난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어머니가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행위가 가족이라는 질서를 파괴하려 할 때, 가족들은 그 대응방식으로 ‘자기세계’를 만들게 된다.

유행가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가 폐가 나빠져 중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스물 두 살의 형은 어머니를 ‘영혼을 사러 다니는 마녀’와 ‘빈틈을 쉬지 않고 노리는 어떤 악한 세력’이라고 경계하며, 어머니의 대타의식 속에서만 존재하는 듯이 보이는 인물이다. 그런 형이 어머니의 불륜을 경험한 후에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다락방에서 지옥의 마귀로 변신해 가는 것이다.

누나는 형과 어머니의 대립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눈물겨운 노력’을 보인다. 어머니의 부정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었다는 자기기만적 작문을 통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다. 어머니를 이해하고자 한 누나의 거짓 작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형과 어머니의 대립을 종식시켜 유년의 평화를 찾고 싶어 하지만 역부족이다. 어머니를 변명한 작위적인 누나의 작문에 대해 형은 “너는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생명연습』, 8쪽)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극기일 뿐이다. 극기일 뿐’이라며 냉소 어린 발광을 한다. 극기는 이런 확립되지 않은 자기세계를 형성하고 지키기 위

14) 김승옥, 『김승옥 문학전집』, 문학동네, 2007, 18쪽, 이하 인용 작품은 작품명과 면수만 기록함.

해서 타인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고 있다. 또한 결국에는 자신마저도 통제해야만 하는 냉혹한 세상을 견뎌내야만 하는데, 그것이 바로 '눈물겨운 노력'을 하며 그 과정을 잘 이루어내야만 그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형은 나와 누나에게 어머니를 죽이자며 음모를 꾸미고 나와 누나도 그 말에 동감을 하지만, 결국 누나와 '나'는 형을 죽이기로 한다. 누나와 나에게 지독한 순결함을 강조하며 유년을 숨 막히게 하는 형의 존재를 없애는 것이 차라리 극기였던 것이다. 누나와 나는 형을 벼랑에서 밀어버리지만 형은 다시 살아 돌아오고 결국엔 스스로 몸을 던져 죽음으로써 어머니와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만다. 지금 살아가자면 부정성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것이 김승옥의 문학적 명제였던 바, 형은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¹⁵⁾ 그것은 그토록 자기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던 형이 동생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버림받은 것에 대한 절망과 상실의 표현이다. 결국 그 자기세계는, 견고함의 흑한이라든가 그 정에 있어서 '봄바람처럼 모호한 상태'로의 이미지였던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세계라는 것을 불완전한 형태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세계가 형성되는 과정이 한 마디로 얼마나 기막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 과정 속에는 변득이는 철판(鐵片)이 있고 눈 뜰 수 없는 현기증이 있고 끈덕진 살의(殺意)가 있고 마음을 쥐어짜는 회오(悔悟)와 사랑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자기세계'를 가진 인물이란 "자기의 상황을 수동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수락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려는 인간"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위선이든 위악이든 가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의 세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성벽은 더욱 견고히 쌓아지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태도는 타인에게 숨길 수 있는 자신만의

15) 신동규, 「김승옥의 개인주의, 그 서사적 가능성」, 『내러티브 제4호』, 2001, 44쪽.

성곽 속에 비밀을 만들어 놓고 평안과 생명을 그 비밀 왕국 안에서 찾고 있는 모순, 즉 비현실적이고 몽상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기세계'라면 분명히 남의 세계와는 다른 것으로서 마치 함락시킬 수 없는 성곽과도 같은 것이다. 그 성곽에서 대기(大氣)는 연초록빛에 함빱 물들어 아른대고 그 사이로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이 있으리라고 나는 상상을 불러일으켜 보는 것이지만 웬일인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세계를 가졌다고 하는 이들은 모두가 그 성곽에서도 특히 지하실을 차지하고 살고 있다. "그 지하실에는 곰팡이와 거미줄이 설 새 없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것이 내게는 모두 그들이 가진 귀한 재산처럼 생각 된다"(「생명연습」, 26쪽) 자기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하실을 차지하고 산다는 인식은 내성적 인물 유형을 만들고 의식의 하향성을 추구하는 김승옥 소설의 주요 모티프이자 인물의 윤리적 황폐성, 인간 존재의 모순과 고독을 나타낸다. 한 인물의 의식의 눈뜸에 있어 성(性)에 관한 체험을 통해 이니시에이션을 겪고 성인세계로 입사하는 「생명연습」은 타인의 '자기세계'에 대한 탐색이란 불가해한 것이며 인간은 서로 다른 무수한 면을 가진 다면체라는 깨달음을 낳는다. 선교사는 멀리 아래로 보이는 시가지의 불빛들을 꿈꾸듯이 보고 있다. 바람에 실려 오는 소금기를 냄새 맡는 듯이 그는 코를 두어 번 킁킁거리려 본다. 드디어 바지 단추를 끄른다. 흥청대는 항구의 여름밤과는 상관없이 바위처럼 고독한 자세 하나가 우리의 눈앞에서 그의 기나긴 방황을 그려내고 있다. 자기세계의 실현을 위한 극기의 방편으로 자신의 생식기를 잘라버린 전도사이지만 극기의 온전한 형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명을 지닌 인간의 성숙은 각기 다양한 비밀의 왕국에서 고통스럽고 부조리하게 치러지는 일련의 과정이고 그 속에서 인간의 모순됨은 통합됨이 없이 널려있다 하겠다. 결국 김승옥이 이니시에이션 구조를 통해 성장소설에서 파악하고 있는 세계관은 어린화자의 미성숙이 극한 한계상황이나 부조리를 경험함

으로써 남성적인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고뇌나 흔들림 없이 성숙한 자기세계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한다. '나'는 "체념하면서 사회적 삶의 여러 형식들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자신을 사회에 적응시키게 되고 또 오로지 영혼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내면성을 자기 자신 속에 가두어 두고 또 자기 혼자서만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다." 인간은 무수한 얼굴을 가진 다면체라는 인식은 곧 인간성을 정형화시키지 않는, 자아탐색의 끝없는 노정을 견게 만드는 인물유형을 탄생시킨다.

결국 유년기의 주인공이 겪어야 할 극도의 순결만을 강조하는 왜곡된 아버지상을 상징하는 형과 타락하고 불순함의 상징인 어머니와의 대결에서 '나'와 누나는 형의 죽음을 택함으로써 성인 세계에 편입하게 된다. 그 이유는 형으로 상징되는 윤리적 세계관과 어머니로 상징되는 개인의 욕망 중 개인의 욕망을 인정함으로써 현실적 생활이 가능한 논리를 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인물들이 극기를 통해 '자기세계'를 형성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삶을 위하여 부자연스럽고 부도덕한 극기¹⁶⁾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건」에서 순결함의 상징인 미영이의 집을 운간 장소로 택함으로써 순결한 유년을 스스로 먹칠해 버리고 성년세계로 편입해 가는 주인공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부재와 함께 '어머니에 대한 오해는 어떻게 손댈 겨를도 없이' 성장해 버림으로써 불완전한 채로 성년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는 것이다.

2. 죽음의 경험과 혼란을 통한 성장

단편소설 「건(乾)」(『산문시대』, 1962)은 전쟁 직후에 공비의 습격을 받고 나서 황폐해진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또

16) 이동재, 「김승옥 소설의 시간구조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90, 21쪽.

한 나로 지칭되는 주인공 소년의 시각으로 성인 세계를 어렴풋이 느끼게 되는 유년기 시절에 나타난 자아의 심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건’의 사전적 의미는 하늘이라는 뜻과 건조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하늘’은 워낙 복합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서 유년기부터 성년기의 입사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떠오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유년기의 하늘은 맑고 푸르면서 드높은 이상을 간직하게 해주는 희망의 상징이자 끝없는 공상으로 가는 통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짙은 어둠의 상징으로 어느 한 개인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 작품은 성년의 세계로 진입하기 위하여 불의와 결합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행동들의 점철로 인하여 세계는 냉혹하고 황폐하게 변해버렸고 사람들의 감정도 그에 따라 냉혈한이 되어 가는 것이다. 이는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건조하고 황폐한 ‘건’의 이미지와도 통한다.

「건」은 「생명연습」에서 보여준 ‘자기세계’, 혹은 ‘극기’를 주인공이 어떻게 확보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성장소설이라 할 수 있다.

미성숙한 주인공인 작중화자 소년이 인간의 악의 세계를 체험하고 그 자신이 또한 위악적인 자기세계를 구축하며 어른으로 자라나는 이야기가 가을의 마른 정경을 통해 펼쳐진다.

작중화자인 ‘나’는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놀라우리만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름다운 삶의 이면에 내재해 있는 악, 음모, 타락을 알아버리고, 그도 그 세계에 흡수되기를 자처한다.

초등학교 6학년, 12살인 ‘나’는 빨치산이 시를 습격한 다음날 아침, 불타버린 시립병원과 방위대 본부 이야기를 들으며 절망감을 느낀다.

방위대 본부에 대한 화자인 ‘나’의 추억은 각별하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곳은 빈집으로서 아이들의 놀이터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특히나 ‘나’의 소중한 추억은 이곳의 지하실에서 이루어졌

다.

어느 날 미영이와 지하실에 단둘이만 있게 되었는데, “나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쑥 미영이를 꼭 껴안아 버렸다.” 즉, 초등학교 1학년 생이었던 ‘나’ 소년의 미영이에 대한 순간적인 포옹행위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후에 윤희누나에 대한 형들과 화자의 ‘성의 유린행위’와도 연계된다. 물론 어린 시절의 추억은 얼핏 생각해 보면 아름다움으로 승화될 수 있겠지만, 다만 그것은 지나간 것에 대한 환상의 조작일 뿐,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그들만의 세계를 꿈꾸던 또 다른 방식의 어린아이의 ‘자기세계 지키기’ 행위였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녀는 하얀색 크레용을 주면서 예쁜 꽃을 그려보라고 하는데, 미영이가 하얀색 크레용을 내게 전하는 의미는 윤희누나의 한복에 대한 ‘나’의 느낌과도 통한다. 수증기의 물처럼 스르르 사라질 것 같은 한복의 이미지는 순결을 의미하는 하얀색의 색채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얀색의 벽에 그려진 하얀 색채의 조화는 어떤 성과물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곧 사라져 버리는 유년의 희망과 순수함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전쟁 때 미영이네는 일본으로 피난을 가버리게 되고 순수함을 상징하는 ‘나’의 첫 번째 이성의 존재는 사라진다. 그런데 이러한 추억이 깃든 방위본부대가 불타버림으로써 순수하고 천진했던 유년의 공간이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공간에서 나와야만 한다. 이는 한 단계의 성장을 의미한다. 그것은 누구나 겪어야만 할 당연한 삶의 수순이지만 다음에 닥치는 일련의 사건들은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천천히 성인 세계에 눈뜨는 것을 방해한다. 바로 시체의 목격이다.

윤희 누나는 내가 성인 세계의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모습을 인식하게 되는 시체의 존재를 알려주면서 그 역할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윤희 누나를 만날 때마다 빨치산이 결부되는 것은 작중 역할 상의 연관성을 암시한다. 그 역할이란 양쪽 모두 주인공의 이니시에이션을 위한 희생물이라

는 것이다. 연민의 대상이었던 빨치산 시체에 돌을 던지듯이 자신이 선망하는 대상을 오히려 공격하는 양가감정이 새로운 사건을 유발한다.¹⁷⁾ 이렇게 “김승옥에게 한국전쟁은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순진과 무지의 상태에 있는 어린 아이로 하여금 세계의 폭력성과 존재의 야만성을 고통스럽게 인식하게 하는 통과제의적 세계로 나타나고 있”¹⁸⁾는 것이다.

‘나’는 빨치산의 죽음을 대단한 흥미 거리로 생각하고 ‘개처럼 숨을 할딱거리며’ 그곳으로 간다. 너무 열심히 달려간 탓에 ‘구역질이 날 것’같다. 빨치산의 시체를 보러 달려가는 모습은 싸움·이기의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한 아이의 심적 상태의 신체적 반응을 보여준다.¹⁹⁾ 그러나 내가 막상 시체를 보았을 때는 시체는 더 이상 흥미의 대상이 아닌 훨씬 더한 강렬함으로 나를 당황스럽게 만든다. 그곳에서 어느 영감이 “빨갱이 시체 구경도 한 이태 만에 하는 군”이라고 침을 탁 뱉고 돌아서서 가자, 몇 사람이 그 뒤를 이어 땅에 침을 뱉고 가 버리는 것을 본다.

나는 얼른 고개를 돌려 버렸다. 다시 시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시체가 누운 거기에서 풀밭이 시작되었고 풀밭이 끝나는 곳에는 벽돌 만드는 흙을 파내 오는 주황빛 언덕이 있었다. 그리고 그 언덕에서부터 까만 색 레일이 잡초를 헤치고 뱀처럼 흐느거리며 이쪽으로 뻗어 오고 있었다. 아무래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던져 주는 구도였다. 방금 잠깐 쑤시고 간 그 강렬한 색채들 때문에 나의 눈은 눈물이 나도록 쓰라렸다. (『건』, 46쪽)

위 인용문 중 회화적으로 묘사된 부분에서는 이 시체를 신식하게 된 한 소년이 그 세계를 얼마나 혼란스럽고 암담하게 보았는가를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다. ‘나’도 시체를 본 후 어지러움을 느끼는데, 이 어지러움은

17) 김명석, 앞의 논문, 49쪽.

18) 공종구, 『성장서사로서의 김승옥 단편』, 『새로 쓰는 한국작가론』, 백년글사랑, 2002, 322쪽.

19) 정과리, 앞의 책, 706쪽.

‘나’의 심리 상태가 혼돈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시체를 보고 난 후, ‘나’는 유소년기의 순수의 세계를 잃어버린 심리적 불안 상태로, 이것이 ‘어지러움’으로 나타난 것이다.

아버지와 형 친구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반장이 찾아와 아버지에게 빨치산 시체를 매장해 줄 것을 제의한다. ‘나’는 아버지가 불쾌하게 여겨 거절할 것을 기대하지만 아버지는 ‘약간의 보수’때문인지 선뜻 대답하고, 형과 형 친구들도 빨치산의 매장에 동참시킨다. ‘나’는 시체를 보면서 “어딘가 마음 한 구석이 따듯해 오는 그런 환상”(『건』, 49쪽)을 가졌었는데, 그 시체의 매장을 아버지가 하게 되었다는 데에 더욱 충격을 받는다.

아버지와 형들은 구덩이 속에 관을 내려놓은 후 돌을 던져 넣고 흙을 채워 매장을 끝내게 된다. 시체의 매장에 그저 바라보기만 하던 ‘나’는 돌을 던져 넣는 것에 증오심을 갖는다.

나는 처음의 돌 몇 개는 남들처럼 천천히 던져 넣었지만 그러나 나중엔 힘껏 마치 돌판매질 하듯이 던졌다. 내가 던지는 돌이 관에 맞는 탄 소리와 뚜렷이 구별되어 들렸다.……나는 힘껏 돌을 던졌다. 나는 돌을 던지면서 힐끗 노파를 쳐다보았는데 노파가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주시하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내 오른팔에 더욱 세찬 힘을 느끼며 던지기를 계속했다.(50쪽)

‘나’의 이런 의도적인 증오심에 의해 나타난 공격적인 행동은 ‘약간의 보수’ 때문에 시체 매장 일을 수락하는 아버지가, 시체 매장 일을 부탁하러 와서 “뺨어 있는 놈, 구역질”등의 거친 말을 하던 반장 때문이다. 즉, 성인사회의 비인간성을 처음 느낀 당황함이 ‘나’도 모르게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났고, ‘나’는 성인들의 세계에 수용되어 버린다. 유년의 세계를 이념적 대립이란 외부 상황으로 인해 상실해 버린 어린 나는 “순진한 아이

가 성인들의 세계를 발견하고 혼란을 겪다가 결국은 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전형적인 이니시에이션 소설의 구조²⁰⁾라는 언급대로 부정적인 현실세계로 편입해 들어가게 된다.

브룩스와 워렌은 이니시에이션을 명백하게 악의 발견이라고 정의하며 이때 주인공은 자신의 발견 결과와 타협한다고 보았는데²¹⁾ 이런 점에서 어린 나의 공격적 행위는 부정적인 현실(이념 대립의 어른들의 세계)과 타협하는 행동이었던 것이다. 사회는 사회의 체제와 이념에 그 구성원들을 종속시키고,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 사회 구성원들에게 체제와 이념에 적응하고 그것을 수용할 것을 강요한다.

아무튼, 빨치산 시체가 담긴 관에 돌팔매질을 함으로써 기존의 어른들 세계로 편입하기 시작한 어린 소년은 윤희 누나에 대한 위악적 행동을 통해 같은 유년의 세계와 결별하고 부정적인 현실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게 된다.

‘언젠가 기막히게 심이 굵은 4B 도화연필을 내게 준 적이 있는’ 이웃집에 살고 있는 윤희 누나를 만날 때마다 나는 ‘뭔가 죄를 지은 기분’이 드는데, 그것은 선물 받은 도화연필을 학교에서 도둑맞았기 때문이다. 그런 나의 죄의식은 나의 과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윤희 누나가 준 4B 도화연필이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이며, 그림이란 나에게 유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낙원으로 기억되는 방위대 본부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 중 그림을 제일 잘 그렸고, 그로 인해 다른 아이들의 부러움과 감탄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윤희 누나가 준 4B 도화연필은 과거의 미영이가 준 노란색 크레용을 연상시키는데, 미영이가 사라지고 없는 그 자리에 윤희 누나라는 존재가 미영의 대리자로 내 가슴 속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20) 김명석, 「김승옥론」, 『현역중진작가연구Ⅳ』, 한국문학연구회, 국학자료원, 1999, 38쪽.

21)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337쪽.

나는 누나가 나를 불러서 데려가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다. 어딘가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나의 뜨거운 이마에 손을 얹어 주었으면. 누나가 준 그 굉장히 굵은 도화연필을 기실은 별로 써 보지도 못하고 도둑 맞아버렸었노라고 오늘은 용감히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리광을 부리며, 나 그런 것 하나 더 받았으면 하고 말하리라. (『진』, 47쪽)

윤희 누나가 미영의 대리자가 된다는 것은 방위대 본부 지하실에서 미영에게 느꼈던 감정을 누나에게서도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나에 대한 감정은 당시의 풍습으로는 금지된 욕망이며 또한 미영에 대한 배신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나의 죄의식은 이런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다.

도화연필을 줌으로써 낙원이었던 유년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고, 미영의 대리자로 사랑했던 누나를 위악적 행동으로 파멸에 이르게 한 나의 행위의 원인이 바로 이런 죄의식이었던 것이다.

윤희 누나에 대한 형들의 강간 음모에 내가 협조하는 것은 빨치산 시체에 대한 나의 입장과 그리고 마침내 어른들의 이념과 행동을 수용하는 돌팔매질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다. 즉, 윤희 누나에게서 느낀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정확한 방법으로 타락한 어른들의 세계와 타협하는 것이었다.

바야흐로 나는 무서운 음모(陰謀)에 가담하고 있었다. 간단한 말을 전해주는 그런 책임이 희박한 행위으로써 가담하는 것이었다. 자, 미영이. 너의 집을 제공하려고 한다. 매가(賣家)라는 글이 적힌 너덜너덜한 종이조각이 붙은 너의 집 대문 앞을 지나칠 때마다 그러나 나는 그 집이 빈집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고집하고 싶다. 미영아 하고 부르면 곧 네가 튀어 나올 것 같았다. 아니라면, 어느 날엔가는 아름다운 일본용 「크레용」을 나에게 선물로 가지고 돌아와서 네가 그 집에 다시 살게 되리라는 기대를 간직

하고 있었다. 너의 빈집이 내게는 용궁(龍宮)처럼 신비스러운 곳이었다. 나는 온갖 화려한 공상(空想)을 그 곳에서 끄집어 낼 수 있었다.

그런데 미영이. 나는 이제 몇 분 안으로 이러한 모든 것 위에 먹칠을 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아아 모든 것이 항상 그렇지 않았더냐. 하나를 따르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개 위에 먹칠을 해 버리려 할 때, 그것이 옳고 그르기를 따지기보다 훨씬 앞서 맛보는 섭섭함. 허기야 그것이 '자라난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미영이, 내게 응원을 보내라. 그건 뭐 간단한 일이다. 마치 시체를 파묻듯이 그건 아주 간단한 일이다. 뭐 난 잘 해낼 것이다.(『건』, 48-49쪽)

형과 친구들의 '무서운 음모'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미영이의 집이 설정되는데, 나에게 용궁처럼 신비스럽던 그곳에서 음모가 진행된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윤희 누나를 배신하여 형들에게 넘기는 행위는 '매가(賣家)'라는 종이조각이 남아 있는 자신의 용궁을, 미영이를, 결국은 자신의 과거를 팔아넘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미영이와의 영원한 결별이며, 나의 '화려한 공상'을 마감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한 번도 '빈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그 곳이 이제 나의 내면에서 빈집이 되어 버린 것이다. 언제라도 부르면 튀어나올 것 같은 미영이에 대한 기억을 그 빈집에서, 내면에서 지워 버리는 일을 나는 '아주 간단한 일'이라 표현하고, 하나를 따르기 위해 다른 모든 소중한 것들 위에 먹칠을 해야 하는 일을 '자라나는 일'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아주 간단한 일'이란 표현은 역설적인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하나를 따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버려야 하듯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말처럼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자신의 과거(소중하고 아름다웠던 유년의 기억)를 부정하고 어른들의 세계로 편입하기 위해 버려야 한다는 것은 아쉬움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 자꾸 다짐을 하며 자신감을 얻으려 하는 나의 태도야말로 이런 단절과 저버림의 어려움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침내 나는 형들의 음모의 적극적인 협조자로 윤희 누나에게 형의 전언(傳言)을 전달하고 만다. 즉, 빨치산 시체가 담긴 관에 돌팔매질을 함으로써 기존의 어른들 세계로 편입하기 시작한 어린 화자인 나는 윤희 누나에 대한 위악적 행동을 통해 낙원과 같은 유년의 세계와 결별하고 부정적인 현실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이다.

형과 형의 친구들은 빨치산의 습격 때문에 무전여행이 무산되자 억압된 여행욕망과 그 억압을 분출시키려는 안간힘이 현실의 개조가 아닌 왜곡된 파행으로 치닫는다.²²⁾ 그것은 윤희 누나를 강간하려는 계획으로 나타난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성년세계의 폭력을 다시 인식하게 된다. 윤희는 순수 정서의 표상이다. 윤희 누나가 형들의 음모에 휩싸여 순결을 짓밟힌다는 것은 순수세계나 가치 있는 세계의 파괴를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형들 음모에 동참하고 오히려 한수 더 뜬 행동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날 아침 윤희 누나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에 그치지 않는다. 주인공이 창조하는 미의 세계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고려할 때 윤희 누나야말로 미영이의 대리자가 되며, 그렇다면 옛 지하실에서 단들이 있었을 때 미영에게 느꼈던 감정을 그녀에게도 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나에 대한 감정은 금지된 욕망이면서, 미영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 죄의식의 또 다른 근원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한복으로 성장한 누나를 만나는 순간 금지된 욕망과 죄의식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절망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갑자기 찾아와 도시를 퇴색시키는 가을이 안개의 이미지와 통했던 것처럼, 이번에 쓸쓸하도록 갑자기 찾아온 가을날의 한

22) 정과리, 앞의 책, 699쪽.

복 차림은 마치 안개처럼 “물이 증발하듯 어디론가 스르르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느낌”으로 두 번째 상실을 예감하게 만든다. 과거에 미영이가 떠나간 것처럼 말이다.²³⁾ 이것은 후에 형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나’까지 합세하여 그녀를 운간하려는 계획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곧 그녀를 희생양으로 하여 ‘나’와 형들의 유년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성년시대로의 입사과정을 치르는 의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3. 근대화의 폭력적 현실 앞에서의 굴복

「염소는 힘이 세다」(『자유공론』, 1966)는 앞서 말한 성장소설 중 가장 나중에 발표된 작품이다. 「생명 연습」과 「건」이 스스로 성인 세계에 편입되어 가는 서술자 ‘나’의 이야기라면 「염소는 힘이 세다」는 외부의 폭력에 어쩔 수 없이 휩쓸려 가는 남매의 이야기가 주축을 이룬다.

「염소는 힘이 세다」는 유년 세계와 성인 세계가 공간적으로 분명히 양분화 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 집과 집 밖의 거리인데 다시 우리 집은 힘 없는 세계로 그리고 집 밖은 힘과 폭력의 세계로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여름철의 폭풍이 부는 날이면 우리 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버리고 싶다는 듯이 쿵쿵 소리를 내며 날뛰는 우리 집의 양철지붕도 힘이 세지 않았고 집 앞 한 길에 교외의 도로 포장 공사장으로 가는 불도저가 지나갈 때면 덜덜덜 떨고 있는 우리 집이 썩어가는 판자 담과 판자로 된 쪽대문도 힘이 세지 않았고 염소가 그럴 생각만 있었으면 간단히 고삐를 떼고 거리로 도망칠 수 있었던 말뚝도 힘이 세지 않았고 미닫이를 사이에 둔 우리 집의 방 두개도, 아무리 밝은 날에도 저녁때처럼 어두컴컴하기만 해서 힘이 세지 않았고 좁은 마당도 좁아서 힘이 세지 않았고 아니 우리 집 전체가, 그것이 날이 갈수록 키가 자라나는 벽돌 건물들 틈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힘이 세지 않았다. 그리고

23) 김명석, 앞의 논문, 48쪽.

나. 바로 나도 열두 살짜리의 힘없고 키 작은 “아유, 우리 예쁜 고추야”일 뿐이다. (중략) 나는 어머니와 누나를 깨끗하고 조용한 곳으로 보내드리고 싶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중략) 나는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 어디 있는 지도 모르지만 이사를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른다. (『염소는 힘이 세다』, 200쪽)

우리 집은 지지분하고 항상 집 밖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바람에 날뛰는 양철지붕, 썩어가는 판자담과 판자로 된 쪽대문, 염소가 간단히 고삐를 풀고 도망칠 수 있었던 말뚝, 밝은 날에도 어두컴컴하기만 한 두 개의 방과 날이 갈수록 키가 자라나는 벽돌 건물들 사이의 우리 집의 묘사는 힘이 세지 않다. ‘나’의 가족은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할머니이다. 우리 가족에게는 가족에게 힘이 되어 줄, 집안을 지켜줄 아버지가 없다. 어머니가 아프면서 가족의 생계수단이 되어준 꽃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 집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누나는 아직 17살로 유년기와 성년기의 중간이기에 생활력이 없고 힘이 없는 존재다. 할머니는 가족 중 가장 힘이 있어 보이는 존재지만, 그것은 귀가 어두워 집밖의 소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뿐 실질적인 힘은 없다. 그래서 선아 누나가 집 안 염소우리에서 강간을 당할 때도 그리고 성을 매개로 취직을 할 때에도 그것을 방관하는 무기력한 집안의 어른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집 밖은 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우리 집 염소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생사탕집의 묘사는 집 밖이 힘이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넘어 어떤 악마적인 기운을 느끼게 한다.

그 불꽃 속에 올려진 약단지 속에는 진짜 뱀들이 담겨져 있고 끓는 물이 그 뱀들의 형체를 풀어헤치며 뱀 속에 있던 가지가지의 맛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있다. 새파란 불꽃과 끓는 물과 그 속에서 요동치다가 점점 형체가 녹아 버리는 뱀 떼와. 그래서 내게는 그 화로 전체가 나로서는 짐작도 안 되는 것이었다. (중략) 지옥 바로 그것인 그 화로

를 유치창의 안-집안에 두지 않고, 유리창 밖-행인들이 오고가는 한길에 내어놓고 있는 이유도 내게는 연탄가스 때문이라고는 조금도 생각되지 않고 오직 그 화로, 지옥의 무게를 감당해 낼 수가 없어서인 것만 같다.('염소는 힘이 세다', 198쪽.)

그 집에서는 “끓는 물이 뱀들의 형체를 헤치며 뱀 속에 들어있는 가지가지의 맛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있”(‘염소는 힘이 세다’, 199쪽)는 화로가 있다. 그래서 어린 ‘나’에게 그 화로는 지옥의 무게를 감당해 낼 수 없어 밖으로 내놓은 것, 악마적 이미지로 인식된다. 따라서 ‘나’는 이 화로가 놓여 있는 거리, 나아가 서울의 거리 전체가 폭력적 힘의 질서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린 내가 집 밖,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염소의 죽음 때문이다. ‘나’는 염소의 죽음을 통해 ‘힘’을 인식하게 되는데 서술자에게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소설의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염소는 힘이 세다’에서는 ‘염소는 힘이 세다’라는 말이 10번 반복된다. 이러한 반복은 서술자와 독자를 세뇌시켜 염소를 먹으면 힘이 세진다는 사실과 함께 염소를 먹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힘이 세지고 싶다는 동경을 갖게 만든다.

여기서의 힘이란 물질주의와 교환가치의 자본주의 논리가 팽배해져 가는 도시의 약육강식의 생존논리에서 강자의 힘을 의미한다. 염소는 살아 있을 때는 그저 힘없는 가축에 불과했기에 집 밖을 나오자마자 맥없이 죽음을 당하고 만다. 그런데 염소는 죽음으로써 힘을 발휘하게 된다.

염소가 죽어서 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외부의 힘(남자어른)을 집안으로 끌어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염소가 죽은 후에 비로소 염소의 힘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생계가 막연해진 가족은 죽은 염소로 “정력보강 염소탕”(250쪽)과 술장사를 시작한다. 과연 염소는 죽어서도 힘을 발휘하여 집 밖의 힘센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온 힘센

사람들은 누나를 강간했고, 무허가 영업이라며 장사를 그만두게 한다.

그 사람들은 돌아갔다. 누나와 나는 병원의 어머니한테로 달려갔다. “우리가 잘못된 거야”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이젠 그만 집어쳐요. 업마. 우리 그 장사는 그만 집어쳐요”라고 말하면서 누나는 어머니 무릎에 얼굴을 대고 울었다. “무서워요. 무서워 죽겠어요.” 계속해서 누나가 말했다. “살기란 힘든 거란다.” 어머니가 힘없이 말씀하셨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염소는 힘이 세다』, 256쪽)

결국 어머니는 병든 몸으로 다시 꽃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누나는 자신을 강간한 합승회사의 직원을 통해 버스 조수로 취직한다. 이렇듯 ‘나’의 가족에게 일어난 풍파와 고난은 소년의 시각을 통해 집안에서 가장 힘이 됐던 염소가 죽으면서 일어난 일로 표현된다. 염소가 그 모든 일들을 몰아왔으니 얼마나 힘이 세냐는 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소설은 어린 서술자의 순진함을 빌어 한 빈민가족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묘사해내고 있다. 유년 서술자의 순진함과 세파의 혹독함은 긴장된 반어적 아이러니를 발생시키면서 어떤 재현적인 묘사보다도 강렬한 현실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어른들만의 소유물인 술을 곁들여 팔면서 그 힘이 더 세진다. 힘이 세졌다는 것은 염소탕을 팔아서 가족의 생계가 해결이 되고 아픈 어머니의 병을 치료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염소가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힘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하였지만 염소탕이 정거장 사내를 끌어들이므로 해서 ‘나’와 누나는 길 밖의 난폭한 힘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염소탕을 팔기 전까지 꽃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면서 가난하고 힘없으나마 집안에서만 삶을 살 수 있었던 상황과는 완전한 대조를 이룬다.

정거장 사내에 의한 선아 누나 강간을 계기로 나는 사내에 대한 복수심과 분노를 갖게 된다. 하지만 염소탕마저 팔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누나의 성은 새로운 가족의 생계 수단으로 이용된다. '나'는 방과 후 누나를 찾으러 누나가 꽃을 파는 장소로 간다. 그러나 그곳에 누나는 없고 누나를 찾으며 내가 보게 되는 풍경은 여관들이 즐비한 지저분하고 은밀한 공간이다. 그곳은 꽃을 팔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공간이다. 하지만 누나는 그 골목, '정거장 사내와 나란히 걷는 모습으로 '나'에게 발견된다. '나'는 누나가 정거장 사내에게 강간을 당할 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모습을 숨어 지켜볼 뿐이었다.

누나의 입에서 자장면 냄새가 풍겨 나왔다. “더러워, 저리 가!” 누나가 내 양쪽 어깨를 자기의 두 손으로 아플 만큼 눌러 쥐었다. “아무 것도 아냐. 나도 취직할 수 있을 뿐인 걸” 누나의 목소리는 떨고 있었다. 나는 힘차게 어깨를 흔들어 누나의 손을 뿌리쳤다. (『염소는 힘을 세다』, 258-259쪽)

누나는 유년기의 순수를 상징하는 꽃바구니를 던져버리고 세계의 폭력에 순응하며 자신의 성을 매개로 버스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누나는 힘이 세졌고 누나가 힘이 세질 수 있었던 것은 외부의 힘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던 염소의 죽음 덕분인 것이다. 집 밖의 세상은 폭력과 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을 누나처럼 받아들일 때 짓밟힐지언정 동경하던 힘이 생기고 어른이 되어 가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에서의 주인공이 혐오하던 양육의 규칙을 깨기 위해 아무 시간이나 기타를 통기거나 고상한 양육집 식구들을 골탕 먹이려고 흥분제를 보리차에 타 놓는 등의 행동을 하며 그들을 경멸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빈민가로 돌아가지 않는 모습과 비슷한 양상이다. 이것은 질서 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자아가 그 질서를 혐오하면서도 결국 그 질서의 역센 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의식을 안은 채 생존의 논리 쪽으로 가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²⁴⁾

24) 김순희, 앞의 논문, 39쪽.

‘나’는 누나가 타고 있는 분홍색 합승차가 집 앞을 지나갈 때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할머니와 함께 누나에게 손을 흔들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의 순진함을 가장했을 뿐이다. 염소 고기의 냄새를 혐오하면서도 그 냄새를 동경하듯이 현실의 힘 앞에 굴복한 누나에게서 풍기는 자장면 냄새가 전달하는 힘의 논리를 ‘나’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염소는 힘이 세다」는 염소의 죽음을 통해 외부의 폭력적 힘이, 유년을 상징하는 힘없는 집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성인 세계의 질서에 편입해 어른이 되어 가는 남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은 외부의 폭력 때문이며 채 성숙하지도 못한 성을 매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인 성인으로의 입문이라고 볼 수 있다.

4. ‘자기세계’의 모호함과 좌절

「환상수첩」(『산문시대』, 1964)은 수기 형식의 이 작품으로 혼돈과 고뇌를 통해 ‘자기 세계’를 찾으려는 20대 초반의 작중 인물들을 묘사함으로써 자기 세계를 찾아가는 각각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생활인으로서의 자기 세계’를 찾는 데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는 청년기의 인물들을 그려낸다. 결국은 20대 초반의 고뇌와 혼란이 해결되지 못하고 불분명한 채로 남겨져 보다 성숙해져야 할 성인기로의 편입 앞에서 좌절하는 젊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20대 초반의 인물들은 청년기를 혼돈과 고뇌 속에서 보내고 있지만, 그들 자신조차 그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20대 초반은 소년기에서 성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태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자기 세계를 깨뜨리거나 확장시킴으로써 더 성숙한 단계, 사회에서 원하는 생활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나가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이미 「생명연습」에서의 화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의 세계가 형성되는 과정이 한마디로 얼마나 기막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번득이는 첩편이 있고 눈뜰 수 없는 현기증이 있고 끈덕진 살의가 있고 그리고 마음을 쥐어짜는 회오와 사랑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봄바람처럼 모호한 표현이 아니냐고 할 것이나 나로서는 그 이상 자세히는 모르겠다. (『생명연습』, 23쪽)

로 현재의 상황을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세계의 형성은 온갖 고뇌와 현기증이 가득한 모호하고 어려운 것이었다. 작품의 제목인 「환상수첩」의 ‘환상’이란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자기세계’이며 이것은 이상적이며 높은 삶의 원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자기세계’를 형성하기 위해 온갖 파행적인 행동을 보이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데 이들의 행위는 「생명연습」에 등장하는 청년기의 인물들이 벌이는 행동과 상통하고 있다.

「환상수첩」에서 젊은이들은 미숙한 형태로 현재의 모호함을 벗어나 ‘자기세계’를 형성하기 위해 행하는 여러 파행적인 행동들을 보인다. 서울에서의 나의 생활은 나와 오영빈과 선애와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나를 만나기 전의 선애는 생활력이 강하고 성실한 여대생이었다. 오영빈은 자살을 동경하는 극도의 허무주의에 빠진 인물로 악의적인 행동을 자랑인양 일삼는 인물이다. ‘나’가 후에 고향에 돌아가 만나게 되는 친구 수영은 오영빈과 같은 범주다. 나는 오영빈과 선애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로 현실의 혼란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오영빈을 흉내 내며 위악적인 행동을 일삼는다.

나는 선애에 대한 사랑을 성욕이라 규정짓고 그녀의 육체를 범하며 심지어는 오영빈의 창녀와 맞바꿔치기를 한다. 선애는 나와 육체적 관계 후 한없이 연약한 여자, ‘찬바람이 술술 세어 나오는 구멍’을 갖게 되지만 ‘나’는 그녀를 지켜내지 못한다. 결국 오영빈이 창녀와 선애를 바꾸자는

제안을 편찬을 받을까봐 하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이 둘의 거래는 선애를 자살로 몰아넣고 만다. “몸 파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하면서 야경을 둘러고 하는 선애의 건강하게 살려는 의지가 패배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 육체의 유린이라는 물리적인 폐해가 직접 관계되고 있다.²⁵⁾ 게다가 오영빈과 ‘나’는 염세주의에 빠진 여대생의 자살이라는 내용으로 신문에 실린 선애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벽에 오려 붙여 놓고 오영빈과 그녀의 죽음을 축하하는 파행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행동은 고향에서 윤수가 수영이 극도에 달한 허무주의에 질투를 느껴 더 위악적인 행동을 일삼는 것과 상통한다. 그러면서 나는 선애의 죽음을 ‘자고 나면 면역이 생기는 열병과 같은 존재’로 규정지으므로 해서 견잡을 수 없는 부정적 세계로 자신을 몰아넣는다. 그래서 ‘나’는 환상과 현실, 진과 위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지쳐버린 서울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갈 결심을 한다. 환상을 가지고 시작한 서울생활은 ‘나’에게 자학과 위악의 행동을 가르쳤고, 그 환상의 끝에서 ‘나’는 도시의 환멸을 보아버린 것이다.

그 해 가을도 깊었을 때, 나는 마침내 하향(下鄉)해 버리기로 결심했다. 더 견디어내기 어려운 서울이었다. 남쪽으로 고향이 있는 남해안으로 가면 새로운 생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서였다.

서울에서 나는 너무도 육된 생활 속을 좌충우돌하고 있었다. 그리고 슬프게 미쳐버렸다고나 할까. 환상과 현실의 거리조차 잊어버려서 아무 것도 구별해 낼 수가 없게 되었고 사람을 미워하는 법을 배우고 말았다. 아아, 그들을 죽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떠나든지 해야 했다.(『환상수첩』, 8쪽)

‘나’의 서울에서의 생활은 소주병을 넣고 다니며 이상(李箱)이 자살을 했으면 더 멋있었을 거라고 고함치고 다닌다든지, 자신의 애인인 선애를

25) 정과리, 앞의 책, 700쪽.

친구 오영빈에게 넘긴다든지, 교수 연구실에서 훔쳐낸 책을 담보로 술에 만취해 본다든지 하는 위악적인 행동으로 점철되었다. '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비생산적인 행위의 연속 끝에 마침내 "슬프게 미쳐버렸다고나 할까. 환상과 현실과의 거리조차 잊어버려서 아무 것도 구별해 낼 수가 없게 되"(*환상수첩*, 10쪽)어서 마침내 서울을 탈출하여 고향으로 회귀하게 된다.

서울에서의 '부정적 세계'의 극복을 위해 내려온 고향에서 '나'는 고향친구들을 만나는데 고향에서 만나게 되는 친구들의 모습도 서울에서의 혼돈의 연장선상일 뿐이다. 그 중 윤수와 수영은 악의적이고 처절할 정도로 타락해 있었다. 폐병쟁이 수영은 자신의 폐병을 위한 약을 구입하기 위해 춘화도를 그려 파는데 그의 모습은 염세적이고 타락했지만 결코 생명을 놓치지 않겠다는 아이러니한 행동을 보인다. 이것은 자살을 꿈꾸면서도 자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처럼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하향하지 않는 오영빈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리고 윤수는 그러한 수영의 모습에 질투를 느끼고 있으며 그보다 더 타락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자신이 춘화도의 모델이 되는 파행적인 행동을 보인다. 윤수의 이러한 행위는 서울에서 오영빈을 흉내낸 나의 모습과 동일하다. 나는 이 둘의 모습에서 서울의 생활이 되살아나는 듯하여 식은땀을 흘리게 된다.

나와 고향 친구들이 모이는 수영의 방은 온갖 비정상적인 작태가 벌어지는 공간이다. 춘화도의 모델이 되는 윤수와 춘화도를 그려 약 값을 벌고 자신의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자 '남자 맛이 좋냐'고 뼈죽거리는 수영이 있고, 무의미한 대화와 무의미한 시간의 흐름만이 있는 곳이다. 이 공간은 도피처인 동시에 수영이 '자기세계'를 형성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수영의 방은 수영이 온갖 악의적인 포즈를 동원해 '자기세계'를 만들어 가는 곳이라는 점에서는 모친 살해를 꿈꾸는 「생명연습」의 형의 다락방과 일면 상통한다. 그러나 형의 다락방은 외간남자를 끌어들이는 부도덕한

공간인 어머니의 방과 상반되는 공간으로, 극도의 순결한 세계를 추구하는 공간이므로 수영의 방과는 대조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형기는 화재로 인해 불구가 된 친구로서 '나'와는 동성애적 분위기를 풍길 정도로 우정을 나누는 인물이다. '나'는 그런 형기에게 '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존재로 고향이 그래도 '긍정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형기는 순수와 안온의 공간인 바다를 그리워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서울에서 오영빈과 선애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것과 같이 '나'와 윤수는 아직은 순수한 영혼을 가진 형기와 가장 악의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수영의 중간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고향에서 어떠한 대답을 얻어내지 못한 '나'는 고향의 또 다른 대안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 이때 윤수와의 동행은 역시 윤수와 '나'는 같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여행이라는 통과이례는 불분명하고 혼란스러웠던 지금까지의 자기세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것은 서커스단의 이씨와의 만남을 통해서다. 그는 가난하고 고달프나마 30여 년이라는 세월을 진정한 생활인으로 살아왔다. 그것은 서커스단의 마지막 공연에서 곡예를 하는 이씨의 모습을 통해 여실히 묘사되고 있다.

여관에서의 이씨와 철봉그네 위에서의 이씨는 그리고 윤수곁에서의 미아와 줄을 타고 있던 미아는 어쩌면 그렇게도 달랐던가! 생활하는 판 얼굴을 슬프도록 서먹서먹했다. 그러나 그 서먹서먹하다는 느낌 속에 존경의 감정이 끼어 들었다면 나는 어찌될까? 그런데 사정은 그런 것이었다. 나의 연민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나의 가족으로 그리고 나의 스승으로 되는 까닭을 알고 보면 그렇게도 단순한 것이었다. 내가 무서워하며 들어가기를 망설이고 있던 것은 실상은 아주 간단한 모습을 한 하나의 얼굴이었는가? 저 일상생활이란 대수롭지 않은 하나의 탈이란 말인가? 둘러써도 별 손해 없는, 과연 별 손해 없는? 철봉그네 위에서의 이씨의 표정처럼 위약도 없고 위선도 없는 것이라면 한번 둘러써보고 싶었다. (『환상수첩』, 18쪽)

‘나’와 윤수는 자신의 삶에 성실한 이씨의 모습을 통해 커다란 울림을 받았으며 이씨처럼 ‘위악도 없고 위선도 없는’ 것이 진정한 생활인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되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게 된다. 이씨의 모습은 ‘환상’이라는 기준에 맞춰놓은 나의 ‘자기세계’ 만들기에 진정한 자기 세계는 ‘성실한 생활인’이라는 답을 준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나’와 윤수가 현실의 모습을 극복하고 보다 성숙한 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들의 성숙해진 모습은 윤수가 서커스단원이면서 밤이면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여자, 미아와의 결혼을 결심하면서 더욱 분명해진다. 윤수는 “시는 그만 두겠어. 이제부터 생활전선이다.”라는 말을 통해 이전의 혼란스러웠던 방향을 접고 건강한 생활인으로 거듭날 것임을 다짐한다. 그리고 이 둘은 섬에서의 여행을 끝으로 지금까지의 ‘어두운 세계’를 견어버리고 현실에 적합한 생활인으로 거듭나는 ‘밝은 세계’로 뛰어들어 갈 수 있는 의지를 얻게 되는데 다음의 서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수는 이른바 ‘밝은 세상’ 속으로 아무 미련 없이 뛰어 들어갔고 나로 말하더라도 그 따스한 여행에서의 생활이 안팎을 대강은 안 듯 하여 이제는 흡족한 마음으로 작은 일이나마 시작할 수도 있을 듯했으니까. 내가 부정해 오던 ‘사랑’도 있는 듯했고 ‘운명’도 인간에게 의존하는 것 같았다. 덤벼들 수 없다고 생각했던 조건도 몇 가지는 나의 오해였으리라 생각될 정도였으니까.(『환상수첩』, 20쪽)

그리고 ‘나’와 윤수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 지난날 수영이나 오영빈에게 품었던 열등감을 벗고 우월감마저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이들이 새로운 세계에 대해 품었던 희망은 너무나 막연했다. 그것은 꼭마단 이씨의 삶이 자살로 귀결되는 것에서 이미 암시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나’의 하향과 남해 도서지방의 여행은 현실에 대한 긍정과 극

복의지의 부재로 말미암아 막연한 기대에 머물고²⁶⁾말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생활인으로 거듭나려던 '나'와 윤수의 희망은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고 '나'는 형기와 찾아간 바닷가에서, 이상의 공간인 바다 사이에 놓인 염전 별관을 결국 건너지 못하고 말 것 같다는 고백을 하면서 수기는 끝을 맺고 있다.

「환상수첩」은 결국 '나'와 윤수 그리고 암시적이나 형기의 죽음까지를 포함한 죽음을 통해 '어두운 세계'인 수영의 세계가 승리로 끝남을 보여준다. 수영은 '어두운 세계'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으며 '세코날이 새보텐을 키우는 것'처럼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버리지 않는다. 수영은 온갖 위악과 작위와 포즈를 동원하여서라도 '어쨌든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불가피하게 죄를 짓게 되면 짓는 것일 뿐 환상적인 기준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자기를 맞추려 애쓰다가 죽음을 맞는 것은 한없는 어리석음일 뿐이라는 논리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²⁷⁾ 가장 성실하게 '자기세계'를 살아가는 듯한 사람들이 결국 얼마나 간교한 자기기만을 통해 '개 같은 놈'으로 변해 버리는 가²⁸⁾를 수영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수영이 '자기세계'의 확립을 위해 벌이는 위악적인 극기의 태도는 「생명연습」에서 한 교수의 태도이기도 하다. 한 교수는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기 위한 방법으로 그녀의 육체를 '말뚝말뚝한 의식의 지휘 아래' 범하여 자신의 사랑을 식게 만든 후 떠나버린다. 그의 태도는 기성의 윤리에 구애 받지 않고 있으며 '극기'의 자세로 자신을 확립하고 있는데 인간성이나 윤리를 저버리고 오로지 '자기세계' 찾기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은 파행적인 행위를 일삼는 수영과 동일하다.

이렇듯이 「환상수첩」은 고향을 떠나 입성하여 도시문화를 체험한 인물이 그 속에서 시련이나 좌절을 맛보고 다시 낙향하는 형태의 성장소설이다.

26) 이동재, 앞의 논문, 34쪽.

27) 김순희, 앞의 논문, 43쪽.

28) 김현,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 『김승옥 문학선집』, 나남출판, 645쪽.

라캉²⁹⁾은 인간의 인식 단계를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인간은 상징계의 규칙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삶을 보전할 수도 발전시킬 수도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도 없다. 상징계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인간은 그 속에 내재하는 굴욕과 억압을 견디어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한 인간이 이 상징계로 입사하기를 거부하고 상상계로 남아있기를 고집한다면 그는 사회적응에 실패하여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하거나 정신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이 김승옥 소설에는 주인공들의 죽음과 자살로써 나타난다. 그러나 상징계로 들어선다는 것은 방황과 자기소외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의 소설에 엄청난 '자기기만'을 동반하기도 한다.

「환상수첩」 속의 인물들은 대부분 현존하는 상징계의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세계와 자아 사이의 균열과 소외를 체험하는 인물들로 그려져 있다.

IV. 결론

이제까지 본고에서 김승옥의 초기작 「생명연습」, 「건」, 「염소는 힘이 세다」, 「환상수첩」 등에 나타난 성장소설적인 특성과 그 성장의 양상 및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김승옥은 196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1950년대 전후 소설이 보여왔던 거대담론에서 탈피하여 근대적 개인의 내면 의식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세계'의 형성하는 과정을 작품화 하였다. 그의 소설을 한 개인의 성장소설로 보면, 그가 그리는 '자기세계'도 쉽게 이해된다. 인물들의 성장 과정은 바로 '자기세계'를 구축하는 과정과 상통한다. 성장소설에서의 '성장'이란 한 개인이 한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그린다는 것을

29) 아니카, 르메르, (이미선 역), 『자크 라캉』, 문예춘추사, 1994, 136-139쪽.

감안할 때, 그의 소설에서의 '성장'이란 바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속성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것이 바로 60년대의 시대적 속성인 동시에, 그들이 구축한 '자기세계'의 한 속성이 된다. 김승옥이 그의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자기세계'의 형성이란 바로 개인의 본질적인 '자아정체성'의 확립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자아정체성에 대한 탐색의 과정과 그에 의한 정신적인 성장이라는 핵심 내용은 김승옥의 소설을 성장소설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논문에서는 먼저 김승옥의 성장소설적인 특성과 양상을 살펴보기 이전에 일반적인 성장소설의 개념과 특성을 먼저 살펴보았다. 유년기에서 소년기를 거쳐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한 인물이 겪는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성장,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각성의 과정을 주로 담고 있는 작품을 성장소설이라고 한다. 이러한 성장소설의 특징은 바로 주인공의 변화 양상이 미숙에서 성숙으로,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결핍에서 충족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성장소설은 크게 시민적 성장소설과 낭만적 성장소설로 분류할 수 있는데, 김승옥 성장소설은 이 중 낭만적 성장소설 유형에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사회가 요구하는 교양 습득을 통하여 바람직한 시민이 되어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인물이 아닌, 사회적 전망이 불투명한 한 개인의 내면적 고뇌와 방황을 주로 드러내는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김승옥 성장소설에 등장하는 소년과 청년들은 무의식 속에 내재된 화해의 욕망을 스스로 기만하고 속악한 어른의 세계에 편승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위악적인 성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김승옥 성장소설 속의 인물들은 음습하고 어두운 '낮선 두려움'의 심리 상태를 보이며, 전쟁과 근대화의 현실 속에서 '혼란스러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낮선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화해와 사랑을 늘 소망하지만 그 화해와 사랑의 소망은 폭력적이고 위선적인

사회적 현실 앞에서 무기력하게 짓밟히고 만다.

이렇듯 내면의 진실된 소망이 억압된 채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위악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유년기 인물들은 성년이 된 후에도 방황을 계속하며 잠재적인 분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Abstract〉

A Study on Bildungsroman revealed the first stage novel of Kim Seung-Ok

Bae, Kyeong-Yeol

Kim Seung-Ok is a Korean author symbolizing the 1960's who tried to pursue the 'self-view of life' by showing interest in the world of a modern individual while avoiding grand discourses characteristic of most novels written during the war-torn era of 1950's. The very formation of 'self-view of life', as represented in the novels by Kim Seung-Ok, leads to the establishment of self-identity, which provides an ample basis for considering his novels to be a sort of Bildungsroman, in that he pursues self-identity and seeks for psychological growth in his novels.

Bildungsroman is a novel in which the process of awakening of an individual who came of age through infancy and adolescence is described with an emphasis on his inner conflict, psychological growth and environment surrounding him. Roughly speaking, there are two kinds of Bildungsroman: civil Bildungsroman and romantic Bildungsroman. Supposedly, Bildungsroman by Kim Seung-Ok belongs to the category of romantic Bildungsroman. Bildungsroman is characterized by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its hero who changes from immaturity to

maturity, from imperfection to perfection, from lack to satisfaction.

The adolescents and young men that appear in the novels by Kim Seung-Ok show a sort of attitude that pretends to be wicked by deceiving themselves and jumping on the bandwagon of mundane and naughty grown-ups. Generally speaking, the most of the adolescents and young men that appear in the novels by Kim Seung-Ok is rather dark and young men that appear in the novels by Kim Seung-Ok is rather dark and obscure, and strangely fearful, which may be interpreted as having a castration complex in the era of war.

Key Words: Kim Seung-Ok(김승옥), Bildungsroman(성장소설), Rite of passage(통과제의), Compromise with reality(현실타협), self-view of life(자기세계), Growing upon a wicked way(위악적 성장).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승옥, 『김승옥 소설전집』 1-5권, 문학동네, 2007.

2. 단행본

김명석, 『김승옥 문학의 감수성과 일상성』, 푸른사상, 2004.

김민수, 『환멸의 세계, 매혹의 서사』, 기획출판 거름, 2002.

김병익, 『60년대 문학의 가능성』, 민음사, 1974.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 문예출판사, 2007.

민족문학연구소,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백낙청, 『시민 문학론』, 창작과 비평사, 1969.

상허학회, 『1960년대 소설의 근대성과 주제』, 깊은샘, 2004.

윤지관, 『근대사회의 교양과 비평: 매슈 아놀드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5.

이보영·진상범·문석우, 『성장소설이란 무엇인가』, 청예원, 1999.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이태동, 『자아의 시선과 미망의 여로』, 문예출판사, 1981.

정과리, 『문학, 존재의 변증법』, 문학과 지성사, 1985.

정현기, 『한국소설의 이론』, 솔, 1997.

정희모, 『1950년대 한국문학과 서사성』, 깊은샘, 1998.

최유찬 외, 『문학과 사회』, 실천문학사, 1994.

한용환, 『소설학사전』, 고려원, 1996.

G.루카치,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85.

미셸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사, 1994.

아니카, 르메르, (이미선 역), 『자크 라캉』, 문예춘추사, 1994.

알리 르페브르, 박정자 역, 『한국세계의 일상성』, 세계일보사, 1990.

3. 논문 및 평론

공종구, 「성장 서사로서의 김승옥 단편」, 『새로 쓰는 한국작가론』, 백년글사랑, 2002.

- 김명석, 「김승옥 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00.
- 김보우, 「김승옥 소설의 글쓰기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9.
- 김주연,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비극적 세계 인식」, 『한국문학 논총 제29집』, 2001.
- 김주연, 「새 세대 문학의 정립」, 『김주연평론문학선』, 문학사상사, 1992.
- 김진기, 「광기와 그 소멸의 구조」, 『겨레어문학 제25집』, 겨레어문학회, 2000.
- 김 현,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1.
- 나병철, 「전쟁체험과 성장소설」, 『청람어문교육』, 2006.
- 남미영, 「한국현대 성장소설 연구」, 숙대 박사논문, 1991.
- 송은영, 「김승옥 소설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7.
- 신동규, 「김승옥의 개인주의, 그 서사적 가능성」, 『내러티브 제4호』, 2001.
- 이은애, 「성장소설의 측면에서 본 김승옥의 작품세계」, 『성심어문논집26』, 2004.
- 이채원, 「형성소설과 회상의 시학-유년 인물과 성인 서술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논문, 2002.
- 정과리, 「유혹 그리고 공포」, 『문학존재의 변증법』, 문학과 지성사, 1985.
- 정영훈,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욕망의 발현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8.
- 정현기, 「1960년대적 삶」, 『한국문학의 사회사적 의미』, 문예출판사, 1986.
- 천이두, 「존재로서의 고독」, 『제3세대의 한국문학』, 삼성출판사, 1983.
- 최애순, 「김승옥 소설의 성장소설적 의미」, 『어문논집47』, 2003.
-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서사 시학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1999.
- 하정일, 「주체성의 복원과 성찰의 서사」,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 한상규, 「환멸의 낭만주의-김승옥론」, 『196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3.